

생그린 천연화장품 개발

“매화발효수 이용 독성 없고 미백효과 탁월”

생그린 익산지사(대표 성태순)는 “화학적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천연제품”이며 “피부세포재생 및 미백효과 등의 기능과 효과에 탁월하다”고 익산지영등동 동사로 45길 23-6 소재한 사무실(익산 천관교하역에서 강조했다.

성태순 대표는 “천연 남녀화장품, 무색무향무독의 화장품인 매화향 화장품, 기능성 샴푸, 보석처럼 환희 빛나는 화장품, 생그린 비단자수,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 등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판매시장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성 대표는 “생그린 개발 배경은 ▲ 생그린의 주력 브랜드화 ▲ 가볍고 촉촉한 사용감개선 ▲ 한방 제품에 발효차리를 곁들임 ▲ 매화+매실+매엽+매근 처리 ▲ 전제품의 무방부제 처방 ▲ 디자인 및 기능의 고급화 ▲ 한방피부 이론을 바탕으로 한 대표 한방 화장품 등의 생그린 제품의 개발배경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대표는 “생그린 브랜드 이론을 다음과 같이 한방이론과 기본이론 두 가지 근거로 만들어 졌다”고 말했다.

첫째로 “한방이론은 인체의 구성 물질인 기, 혈, 진액과 피부와 오장과의 관계 등이 원활한 혈액순환,

호르몬 재생형성과 내부장기 등이 양호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역점을 두고 개발되었으”며 “두 번째로 기본이론은 생체 내의 대사과정 중에는 항상 활성산소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생체내의 항산화 방어계에 의해 소거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활성산소는 생체를 공격하여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유발하는 등 세포구성성분의 변성 및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매화나무 4계절의 정기를 담아 발효시킨 고 골격 발효한방 화장품과 식물성분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 주는 한방화장품 및 오장유부 등을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화장품이 개발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매화발효수는 유산균 *Lactobacillus bulgaricus*로 발효과정을 거쳐 세포에 독성이 전혀 없고 유해균을 없애주며 “미백작용이 배가되게하고 면역증강과 보습효과가 더욱 upgrade된 원료이다”고 말했다.

“매실은 구연산을 포함한 각종 유기산과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과실이며 “피지분해 및 제거, 피부세정 효과와 신진대사 촉진 등에 탁월한 기능과 효과를 가진 열매이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성 대표는 “매실이외 매엽의 경우 맛이 시럽하고 성질은 평하며 독이 없기에 만성질환, 과



란 및 생리가 맞지 않을 경우 치료에 사용될 정도로 효과가 좋으며 또한 “매근의 경우는 유주성 관절 통증이나 담낭염 나열, 아기를 매근을 삶은 물로 목욕 시 육안이 생기지 않음 등의 치료 효과가 있기에 매실과 매엽, 매근 등을 혼합해서 제품을 만들시 생그린 제품의 효과와 기능이 탁월해 진다”고 덧붙여 말했다.

현재 생그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선 생그린 건강기능식품은 마라톤, 천기향 홍삼캡슐, 파워헬스 골드, 옥타코사놀, 퀴노프랄 칼슘, 굿모닝 혼합 유산균 프리미엄, 오메가3&루테인 골드, 청춘골드 아연, 감마리놀렌산 골드, 알로베라 포르테, 알로에 결제품 셀렌 비타민C, 배앰칼슘 등이 생산되며, “화장품은 생그린 비단자수, 매화향 화장품, 기능성 샴푸 및 남성화장품 등이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생그린 익산지사서 근무를 하고자 하신 분과 직접 제품을 구입하고 하시는 분은 성태순 대표 010-3657-0242, 063-852-0242로 문의하 주길 바란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북銀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장현옥),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장애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제8회 JB Card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공모전’을 실시한다.

올해로 8회째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에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 ‘장애인을 위한 미래의 보조기구’ 등의 주제로 초등학교는 8절지에 분인인 그린 그림을 일반인은 최소 200자 이상의 자유로운 형식의 글을 응모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4월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수상자 발표는 5월 2일이다.

접수는 전북은행 본점 및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사예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각 영역별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94명의 수상자에게는 전북은행장상, 전북교육감상을 비롯한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www.jbank.co.kr) 및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www.jwcc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용택 은행장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4일까지 주얼리산업 특별전시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는 오는 4일까지 전주한옥마을 공예품 전시관에서 주얼리산업 육성사업 특별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주얼리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우수제품 30점과 익산주얼리산업육성사업단 R&D 개발 연구제품 50점 그리고 익산 주얼리와 남원 옷걸이공예품 협업체품 등이 참여했다.

익산주얼리협동조합 등의 주얼리제품 상설 판매매장도 운영 중이고 시중 가격보다 30%~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도내·외 방문객들에게 전라북도 주얼리제품과 전통 옷걸이 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JB학생·후불교통카드 이벤트

추첨 통해 노트북 등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JB학생증체크카드’와 ‘JB후불교통카드 이벤트’를 실시한다.

‘JB학생증체크카드 이벤트’는 전북은행 JB카드와 제휴로 JB학생증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전북은행 홈페이지 응모고객에 한하여 이벤트 기간 동안 2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하여 최신형 노트북(1명), LUBIX 블루투스 헤드셋(20명), 모바일쿠폰 5천원권(100명)을 준다. 또한 롯데시네마(전주점 전주영화점, 군산점) JB학생증체크카드 현장결제 고객에게는 행사 대상일 경우 최대 5천원까지 현장현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JB학생증체크카드 소지 고객 5명이 한 팀이 되어 응모하면

이벤트 기간 중 총 사용금액의 TOP 5를 뽑아 특별 장학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러 JB후불교통카드 이벤트는 3대 업종(후불교통+의식+편의점)에서 이벤트 기간 동안 2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아이패드 에어(1명), LUBIX 블루투스 헤드셋(20명), 모바일쿠폰 5천원권(1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이 기간 JB후불교통카드 드 최초 신규 고객에게는 홈페이지 응모자에 한하여 이벤트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용한 후 불교통비의 50%를 캐시백 해주는 반값이벤트(월 최대 고객별 1만원)로 고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ank.c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영수 기자

도공, 고속도 공공디자인 공모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승)는 ‘제5회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공모’를 접수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사진제보공모전’과 ‘디자인공모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진제보공모는 바꾸고 싶은 고속도로 시설물의 사진을 찍어 공모전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4월 한달동안이다.

디자인 공모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시된 사진을 참고해서 디자인하고 해당 과일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이다.

선정된 우수 디자인은 고속도로 시설물 경관 개선에 반영된다. 상금은 총 21명에게 1,880만원이 수여되며, 디자인공모 대상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광영 기자

전북중진공, 글로벌마케팅 참여기업 모집

미국 진출 희망 20개사 선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전원찬)는 오는 4월 10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16년 FTA활용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현장평가와 해외진출타당성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2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공동브랜드 사업화’ 또는 ‘글로벌 기술사업화’로 구분해 진행한다.

‘글로벌 공동브랜드 사업화’는 글로벌 제품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외

기업과 공동으로 포장 브로슈어, 홈페이지 등에 브랜드를 같이 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기술사업화 는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현지기업과 기술협력 또는 합작투자해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원찬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인지도가 부족해 현지 마케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면서 “FTA활용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room1983@str.or.kr)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국제협력처(055-751-9681)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국표원, 학생용품 안전성 조사 기방 등 9개 제품 리콜 조치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과 스포츠용품 의류 등 4개 품목 26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용 가방, 필통 교복에서 총 9개 제품이 위해성분을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해 해당제품들을 전량 리콜 조치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31일 국표원에 따르면 학생용가방은 4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188배, 1개 제품에서 피부염·탈모증·중추신경장애등을 유발하는 납이 1.3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학용품 중 필통은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6배 초과됐으며 교복은 2개 제품에서 피부자극, 알레르기성 접촉과부염을 유발시키는 pH가 기준치를 최고 15%상회했다. /인진수 기자



볼 정기세일로 복적이는 백화점 세일 품목들을 고르고 있다.

지난 3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국·내외 고객들이

익산국토청, 호남지역 건설공사 안전실천협 개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은 지난 31일 익산국토청 대회의실에서 안전 건설현장 조성 및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2016년 제1차 호남지역 건설공사 안전실천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11 광주시군자치부 등 12개 광주시군과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 등 10개 건설안전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안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동 추진방안, 안전캠페인 공동 실시 방안,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방안 등 6대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신광영 기자

국립중앙도서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